

# 논증 이론의 현황과 국어 교육의 과제

민 병 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차 례>

- I. 머리말
- II. 논증의 개념과 특성
  - 1. 논증의 개념
  - 2. 논증의 특성
- III. 논증 이론의 현황과 전망
  - 1. 논증 이론의 현황
    - 1) 논리학적 접근
    - 2) 실용-대화론적 접근
    - 3) 수사학적 접근
  - 2. 논증 이론의 전망
- IV. 국어 교육을 위한 과제 설정
  - 1. 반성과 전환
  - 2. 기초 연구 과제
  - 3. 실용적 연구 과제
- V. 맺음말

## I. 머리말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방청객 : [...] 그 동안의 조선일보의 행적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친일 행적을 많이 했구요. [...] 여러 가지 여론을 조작하고 날조하

고 또, 인권을 유린하는데 외면을 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편파 보도를 하고 더군다나 우리 7천만 국민의 염원인 통일을 방해하는 지금까지 조선일보를 쫓 보아오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 국민에게 많은 거짓말을 하고, 우리 국민의 염원인 통일을 방해하고 정말 수구냉전적인 이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 조선일보는 우리 국민에게 사죄를 하고, 정말 가능하면 자진 폐간하는 것을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

사회자 : [...] 자, 이 방청객 발언에 대해서

패 널 : 내가 저 분께 답변하죠. 원래 죽은 사자 상대로 큰소리 치는 건 아닙니다. 일정 때, 선생님 일정 때 몇 살이셨습니까?

방청객 : 선생님은 그때 살아 계셔야만 역사를 아십니까?

-MBC TV 100분 토론(방송일자:2000. 9. 23)<sup>1)</sup>

위의 예문은 “안티조선 언론자유 침해인가, 소비자 운동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TV 토론 담화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방청객 한 사람이 조선 일보에 대해 다소 격한 비판을 하는 데 대해 조선 일보의 입장을 옹호하는 패널이 방청객의 에토스를 공격하였고, 이에 대해 그것이 논의의 본질과는 상관 없는 문제라는 점을 들어 방청객이 반박을 하는 장면이다. 위의 예문은 토론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사회 토론 문화의 단면을 잘 드러내 준다. 왜곡된 근대사가 오늘날까지 논쟁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는 점이 그렇고 패널이 자신의 나이에 호소하여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토론에서 권위주의적 요소가 공공연히 드러난다는 점이 그러하다.

한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실천은 변증법적 대립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해 나가지만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대립의 해소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합리적인 해결 과정이 없다면 그것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모순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한

1) [...] 표시된 부분은 인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가 생략한 것임.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은 철학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것이 인간의 사회 생활에서 개인과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그리고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개인과 집단의 공존과 영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방법적 원리라고 범박하게 설명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서, 의사 소통 양식으로서 논증에 주목하게 하는 것으로 매체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 급속히 발달한 정보 통신 매체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유통시키고 있다. 매체의 다양화와 더불어 양적으로 늘어난 정보는 그 수용자에게 무언가를 확신시키려 하거나 설득함으로써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하는 안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정보를 해석하고 수용하는 자유가 이론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으로는 특정인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유의 제한은 사회적 제도와 관습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 생명 체계로서 인간은 다른 생명 체계들과 구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생명 체계는 외부로부터 유래하는 질료 및 에너지의 유입에 대한 개방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체계는 작동상으로 폐쇄된 재귀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박여성(역), 1995). 다시 말하면 어떤 체계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외부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정보를 개체 내에서 재귀적으로 구성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로부터 질료와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없거나 받아들인 질료와 에너지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서 개체의 폐쇄적 작동을 파괴하는 정도에 이르면 그 개체의 생명은 존속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생명 체계로서 존속하기 위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과도한 인지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한 인지적 부담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논증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대인은 자신에게 특정의 인식과 행동을 강요하는 메시지에 적절히 대응하고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개체들에게 특정의 인식과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인과 개인은 물론이고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어떤 집단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인류는 근현대사 속에서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폭력과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인간성의 훼손을 경험해 왔다. 그 결과로 얻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인류의 공존과 공영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지향은 폭력 대신 대화와 협상을, 자연과 환경의 파괴 대신 보존이라는 생태주의적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인류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에 빚어지는 현실적인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함으로써 그 존속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우리 사회는 근대적 인간상의 구현 즉 개성의 존중과 공동체 번영이라는 다소 모순적인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개인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가 결합하는 장인 공교육을 통해서 그 해결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공교육은 상당히 오랫동안 구조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형식주의 교육을 실천해 왔다. 학습자는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비판적으로 대처하고 실천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언어와 지식과 활동을 배우는 대신 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조화되고 형식화된 지식들을 암기하도록 강요받아 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러한 지식을 좀더 잘 다룰 수 있는 소수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대신 그 외의 대부분의 학생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지금까지의 공교육이 근대적 인간상의 구현이라는 현대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국어 교육은 그 동안 교육 내용으로서 구조화되고 형식화된 교육을 선호해 왔다. 비교적 최근에 국어 교육은 그 내용으로서 언어 사용의 기

능과 전략을 그 주요한 요소로 설정해 왔는데 이것은 지식 중심의 교육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과 전략 중심의 교육은 그 자체를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는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필자는 그러한 비판의 중심에 국어 교육의 도구성 내지 형식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본다. 언어가 맥락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국어 교육에서 그 다양한 맥락들을 있는 그대로 다룸으로써 학습자에게 그러한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어 교육에서 어떤 주장이 담긴 글을 다룬다면 우리는 그 글의 구조나 주제를 추출하는 방법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장이 제기된 사회 문화적 맥락을 살피고 나아가 그러한 논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제는 다양한 맥락들과 그러한 맥락이 언어로 표현되는 양상을 어떻게 기술하여 교육 내용으로 조직할 것인가 하는 데 모아진다. 그 양상을 나타내 주는 용어들로는 문체, 텍스트 유형, 장르, 담화 영역 등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언어 표현의 양상으로서 ‘장르’를 국어 교육의 내용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각각의 하위 부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 구성의 원리가 학습자의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과 요구에 따라 어떻게 위계화될 수 있는지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문학 텍스트는 ‘서정, 서사, 극’ 또는 ‘서정, 서사, 극, 교술’이라는 장르로 분류해 왔고, 그 하위 분류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비문학 텍스트의 경우, 『문심조룡』에서도 살필 수 있는 바, 동양적 분류의 전통이 독자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우리의 고전에서도 그러한 분류에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지만 현대에 와서 그러한 장르 논의 또는 텍스트 유형론의 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국어 교육의 장에서는 텍스트 유형을 통상 언어 사용의 목적에 따라 ‘정보 전달적(또는 설명적), 설득적, 정서적, 친교적 텍스트’로 분류해

왔다.<sup>2)</sup> 이 가운데 설득적 텍스트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 연구에서는 통상 설명적 텍스트(expository text)라는 이름 아래 정보 전달적 텍스트와 설득적 텍스트를 연구해 왔지만, 그것은 주로 텍스트의 구조적인 측면에 국한된 것이었고, 의사소통적 사건으로서 텍스트의 생산과 이해 과정을 포괄하여 정보 전달적 텍스트와 설득적 텍스트를 구별하여 연구한 성과는 많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국어 교육의 배경 학문의 하나로서 논증 이론의 배경과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국어 교육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 또는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II. 논증의 개념과 특성

### 1. 논증의 개념

Van Eemeren 등(1996: 5)에 따르면, 논증활동(argumentation)<sup>3)</sup>이란 “합리적인 판단에 앞서 어떤 입장을 정당화(또는 반박)하려는 의도로 일련의 명제들을 제시함으로써, 논박의 여지가 있는 그 입장을 청자 또는 독자가 수용할 가능성(acceptability)을 증대시키는(또는 감소시키는)

2) 이러한 분류법은 제6, 7차 교육 과정에서 채택한 분류의 방법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세부적인 분류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유형 분류 자체가 갖는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어 사용 자체가 그러한 유형화로 포괄할 수 없는 가변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3) 여기에서 ‘argumentation’의 번역어로 ‘논증활동’을 선택한 것은 ‘논증(論證, argument)’이라는 용어와의 구별을 위한 것이다. argument- argumentation의 대응을 ‘논(論)-논증(論證)/논변(論辨/論辯)’ 또는 ‘논증-논증하기’ 또는 ‘논변(論/論辯)-논변하기/논변활동’이라는 용어로 기술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논증’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단 ‘논증-논증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적이고 사회적인 추론(reason) 행위이다.”

논증활동은 그것이 대개 일상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언어적(verbal) 행위이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루어지고 상호작용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며, 주제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추론 행위이다. 담화에서 논증활동은 특정의 주제에 대한 특정의 의견 또는 입장을 전제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지만 그것은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논증활동은 논증자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 이상의 일련의 명제들이 사용된다. 그럼으로써 논증활동은 논박의 여지가 있는(controversial) 입장을 청자 또는 독자가 수용할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지향한다. 그리고 논증활동은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리라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다.

Johnson(2000: 24-26)은 논증의 개념을 논리, 추리 및 함축, 설득,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등의 개념과 대비하여 설명한다. 여기에서 그의 설명을 참고하여 각 개념 간의 차이를 간단히 고찰해 보자.

논증은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그것을 옹호하는 방법과 관련되나, 논리는 입장을 옹호보다는 전제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과 관련된다. 논증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루지만, 논리는 상황, 참여자, 문맥을 추상하여 추론의 ‘형식적 타당성’만을 다룬다. 형식 논리학적 의미에서 논리는 상황이나 참여자로부터 분리하여 표준화된 형태로 진술되며 논리학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언어 표현들을 사용하여 논증의 타당성을 따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논리학에서는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많은 언어적, 맥락적, 상황적, 화용적 요소들이 적절히 다루어지지 못한다.

추리(inference)는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이끌어 내는 정신 작용 또는 그 결과이다. 추리는 논증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신 작용이거나 논증의 요소인 전제 또는 결론이 될 수 있으나 논증 그 자체는 아니다. 그리고 함축(implication)은 두 언어 항목 간의 논리-언어적 관련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수반하

는 관계이다. 가령, “그가 글을 쓴다”라는 표현은 “그가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어떤 논증에나 함축이 존재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논증은 추리나 함축의 연쇄가 아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합리적 추론(reasoning)의 유형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논증은 설득(persuasion)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설득에는 논증 이외의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다. 설득을 위해서는 비합리적인 수단이 동원될 수도 있다. 논증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과정을 통한 설득을 의미한다. 그런데 논증은 때때로 에토스나 파토스에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런 요소들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논증은 설득보다 좀더 보편 타당성을 띠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갑이 을을 설득하였고 을이 갑에게 설득되었다고 할 때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설득의 과정은 논증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정서적 감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논증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편적 청중’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또 설득이라는 용어가 설득자로부터 피설득자로의 일방성을 강하게 함의하는 반면 논증은 의견이 대립하는 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더 강하게 함의한다.

문제 해결(problem solving)의 초점은 해결을 요하는 ‘문제’에 있다. 문제 해결은 논증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는 설득력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정신적인 결과물을 평가하는 능력이다. 비판적 사고의 많은 부분이 논증(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논증(과정)의 기능을 요구하지만, 비판적 사고의 초점이 더 넓다.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논증뿐만 아니라 추리, 의미의 명료화, 증거의 탐색 등이 필요하다.

## 2. 논증의 특성

어떤 대상의 특성은 그것을 어떤 목적에서 고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어) 교육을 염두에 두고 논증활동을 고찰할 때 우리는 적어도 다음 네 가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논증(활동)은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논리학의 역사는 한 마디로 말해 맥락으로부터 일탈의 역사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형식 논리학은 논리를 곧 형식의 논리와 동일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자연 언어로 표현되는 논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데 난점이 있다. 사실, 형식 논리학은 자연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의미의 명료성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기호로 번역하고자 한다. 형식 논리학에서 타당도란 결국 맥락이 제거된 명제들간의 형식적 타당도를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형식 논리학은 분명히 언어가 갖고 있는 체계성과 형식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언어학에서 언어의 형식적 기술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논증 현상을 구체적인 맥락에서 제거하여 형식으로만 다루는 것은 그 실상을 왜곡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둘째 논증(활동)은 발달적 특성이 있다. 발달이란 한 생명체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띠면서 변화해 가는 일 또는 그러한 변화를 의미한다. 논증(활동)에 발달적 특성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한 학습자에게서 또는 일정한 집단 안에서 일반적인 인지나 언어 발달과 일정한 관련을 맺으면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의 일정한 변화 과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 인지 발달과 구별되는 일정한 발달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러한 변화의 양상을 전제할 때에만 그것의 교육적 가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논증의 이러한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발달이 촉진되는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환경에 대해 좀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그랑드(1997: 119)는 언어의 진화 양식을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첫째, 언어는 종 내에서 진화하고 종의 유전적이고 적응적인 능력을 지지한다. 둘째, 언어는 화자의 공동체 내에서 진화하고 그들의 문화를 지원한다. 셋째, 언어는 개체 발생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동안 개인적으로 진화하고 사회화 및 교육을 지원한다. 넷째, 언어는 담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동안 참여자들에게서 진화하며 그들의 방향성을 지원한다. 논증 교육의 관점에서 논증의 발달적 특성은 주로 네 번째 양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살필 수 있는 논증 행위의 발달뿐만 아니라 담화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진화의 양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논증 행위는 언어 공동체 내에서 문화적으로 발달한다.<sup>4)</sup> 가령, 한국어 공동체는 그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사유와 실천에 적합한 논증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언어 생활 문화로서 논증의 발달적 양상도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가 된다. 그리고 가장 거시적인 국면으로 우리는 문화사적 수준에서 논증활동의 발달 양상을 추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범박하게 추정해 보더라도 인류의 역사는 합리성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신적 권위가 진리 판단의 기준이던 시대로부터 오늘날 합리성의 기준이 근대적 자아 간의 합의적 합리성으로 자리매김되어 온 과정은 확실히 논증활동의 문화사적 발달 양상을 보여준다.

셋째, 논증(활동)은 특정 문화를 반영한다. 오늘날 세계는 이론상으로

---

4) 장상호(1997: 160-170)에서는 학문관이 단계에 따라 발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발달적 위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위계의 차이는 교육적 실천 다시 말하면 선진과 후진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논증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는다면 우리는 논증활동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식의 발달 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비교초기가 언급한 바 '근접 발달 영역'의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지적 수준의 근접 발달 영역에 있는 참여자들 간의 논증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논증의 발달적 특성에 주목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국면을 포함한다.

는 다문화주의의 대세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제 특정 문화권이 자신의 우위를 내세워 여타의 문화를 억압하거나 그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하는 제국주의적 정책은 더 이상 자리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세계는 막대한 다국적 기업의 자본이 바탕이 되어 세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민족 또는 공동체는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어떤 공동체가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그 문화 공동체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 특히 많은 주변국가들에서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왜곡된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화의 자생적 맹아들을 싹틔우지 못한 채 서구의 문명과 정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급격한 산업화의 결과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것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회복하려는 문화적 운동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언어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언어는 사고와 분리되지 않는다. 언어를 고찰한다는 것은 음운, 형태, 통사적 지식만을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표현된 사고의 패턴과 과정까지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 선인들이 우리말로 어떻게 사고했는지, 다시 말하면 언어를 통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러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확인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 왔는지를 밝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왜 뿌리가 없는 서양의 것들에 거부감을 느끼고 우리 고유의 것을 찾고자 하는지를 알게 해 줌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논증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한 우리는 우리 논증 문화의 고유성은 무엇이며 그것이 인류 문명사적 발전 과정에서 어떤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의하고 있는지 고찰해야 한다.

넷째, 논증(활동)은 하나의 장르로서 기능한다. 이것은 특히 국어 교육의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장르(genre)’

는 전통적으로 문학의 용어였는데 최근에는 인류학, 문화 연구, 민족지학, 사회 언어학, 비판적 담화 분석, 사회 기호학, 페미니즘, 후기구조주의 문학 이론 및 문화 이론에서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근의 장르 이론에 따르면 장르는 유형화된 특정 텍스트 그 자체만이 아니라 텍스트의 생산과 해석을 둘러싸고 개재되는 생산자와 수용자 그리고 상황의 맥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말하자면 장르란 특정의 문화적 배경 하에서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에 관여하는 시공간(locality), 배경(background), 참여자(participant), 화제(topic), 양식(mode)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논증을 장르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그것이 특정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논증에 대한 평가 또한 문화 내적(emic) 또는 문화 외적(etic)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논증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 맥락 즉, 어떤 시공간에서, 어떤 논의의 배경 하에, 그리고 어떤 논증자와 청중이 참여하는 가운데, 무엇에 대해서, 어떤 양식으로 말하는가를 고려하여 논증 텍스트를 해석하고 생산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교육의 장에서 단순히 특정 유형의 텍스트를 규격화된 절차에 따라 생산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맥락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논증 연구는 한 문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논증 장르들이 존재하며 그것이 어떤 정형성을 띠면서 맥락과 상호작용하는지를 밝혀 내는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다.

### III. 논증 이론의 현황과 과제

#### 1. 논증 이론의 현황<sup>5)</sup>

Tindale(1999)은 논증 이론의 흐름을 논리학적(logical), 대화론적(dialectical), 수사학적(rhetorical) 접근으로 구분하여 소개한 바 있다. 이 세 관점은 논증활동을 각각 산물(products), 절차(procedure), 과정(process)으로서 보는 관점을 반영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하겠다.

#### 1) 논리학적 관점

##### (1) 아리스토텔레스와 형식 논리학

논증활동 이론의 고전적 연원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피스트적 논박』, 『분석론 전서』, 『분석론 후서』, 『변증론』, 『수사학』 등에서 논리학, 대화론, 수사학의 풍부한 자원을 마련하였다. 현대 논증 이론의 흐름들은 대체로 그 중 어느 한 줄기에 연원을 두고 발전해 왔다. 논리학적 관점 역시 그 연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syllogism)’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지식, 통찰, 의견은 그것이 합리적인(rational) 사고에서 생기는 한 현존하는 지식, 통찰, 의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현존하는 의견은 우리가 추론(reasoning) 또는 논증의 도움으로 새로운 의견에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논증을 연역적 삼단논법과 귀납적 삼단논법이라는 두 종류로 구분한다.

그의 삼단논법은 19세기까지 말까지 그 지위를 의심받지 않는 논리학의 패러다임으로 굳어져 왔다. 삼단논법 자체가 ‘논증’과 동일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도한 것은

5) 논증 이론의 현황에 대한 설명은 주로 van Eemeren(1996)과 Tindale (1999)을 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실상 그것은 결론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증명(demonstration) 이론이었다.<sup>6)</sup>

대부분의 일상적 논증은 범주적 삼단논법이나 명제적 논리의 패턴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일상의 논증에 적합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인 논증자와 청중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인 맥락에서 고려하지 않는 한 그것은 논증활동의 이론으로서는 설명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2) 툴민의 전환

영국의 철학자 툴민(Stephen E. Toulmin)은 비트겐슈타인, 오스틴 등의 일상어 철학에 영향을 받고 *The Uses of Argument*(1958)에서 형식 논리학을 일상 논증의 이론으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그의 저작의 중심 주제는 일상어에서 또는 학문적 연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화제에 관한 주장과 의견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툴민의 중심적인 주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논증에 합리성이 요구되며 논증의 건전성<sup>7)</sup> 기준은 논의되고 있는 문제의 특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는 논증을 평가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으며 이러한 규범이 형식 논리학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실제로 일어나는 논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 기준은 상관이 없다고 본다.

논증의 질을 결정하는 데는 그것이 어떤 분야의 것인지에 상관 없이

---

6) 오늘날 우리가 의미하는 바 논증활동의 연원은 그의 『수사학』에서 언급된 바 소위 ‘약식삼단논법’(enthymeme)과 같은 개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전제를 생략한 그래서 무언가가 부족한 생략삼단논법 또는 약식삼단논법이 아니라 청중의 추론을 전제로 하는 수사학적인 설득방식의 하나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Tindale(1999: 서론) 참조. 이런 의미에서 ‘enthymeme’을 ‘생략’ 또는 ‘약식’ 삼단논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본래적 의미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7) 툴민은 건전성(soundness)의 개념을 타당성(validity), 설득력(cogency), 효과(strength) 등과 같은 의미로 쓴다.

적용될 수 있는 기준도 있지만 모든 경우에 어떤 가변적인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똑 같은 논증의 일반적 자질을 틀민은 '분야 불변적(field-invariant)'이라고 불렀으며, 논증의 각 분야에서 다른 특정 자질을 '분야 의존적(field-dependant)'이라고 불렀다.

논증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그는 논증의 구성 요소를 도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sup>8)</sup> 그는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루어지는 삼단논법의 형식적 구성 요소를 대신하여, 논증의 요소를 주장(claim, 또는 결론), 근거(data, 또는 자료), 보장(warrant, 또는 추론규칙)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그의 도식에 따르면 논증의 건전성은 이 세 요소 간의 관련성과 보장을 뒷받침하는 지원(backing 또는 보증), 예상되는 반반(rebuttal, 또는 예외조건)을 고려한 양상연산자(qualifier)에 의해서 결정된다.

틀민의 철학적 구상은 보장(W)의 성격에 따라 논증의 유형을 분류하거나 비판적 사고의 교육에서 각 분야의 인식론을 강조하는 형태로 적용되기도 하는 등 논증 이론은 물론이고, 교육적 인식론, 철학, 사회 과학 등에 널리 적용되었다.

### (3) 비형식 논리학

비형식 논리학은 형식 논리학이 일상 언어를 설명하는 데서 노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논리학 내에서 출현한 것으로서, 대체로 70년대 이후에 독자적인 흐름을 형성해 온 것으로 보인다.

Woods and Walton(1982, 1989)은 전통적인 비형식적 오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형식 논리학과 비형식 논리학 간에 가교를 놓았다. 그들은 오류를 연구함으로써 비형식 논리학을 다루었지만 점차 화용론을 자신의 방법론에 적용해 나갔다. 그래서 왈튼의 '비형식 논리학'은 매우 실용적이며 때로는 논증에 대한 실용-대화론적 설명과도 동일시된다. Johnson(1995: 237)에 따르면 비형식 논리학은 (발화에 기반해 있다기보

8) 틀민의 모형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과 평가는 각각 Toulmin(1958: ch.3)과 van Eemeren et al.(1996: ch.5)을 참조할 것.

다는) 텍스트에 기반하여 있고, (비판적 토의보다는) 하나의 논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규칙보다는) 기준을 포함하며, (절차나 과정 지향적이기보다는) 산물(product) 지향적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비형식 논리학을 ‘산물 지향적’이라고 보았다는 점이다. ‘비형식 논리학’은 논증자나 청증을 고려하지 않으며 논증의 절차나 과정보다는 종결된 산물을 구상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형식 논리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형식 논리학과 비형식 논리학이 모두 기본적으로 산물 지향적이라면 양자 간의 구별은 논증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나에 달려 있을 것이다. 고전적 전통에서, 전제가 결론과 맺는 관계에 관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전제가 결론을 함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형식적 타당도(formal validity)는 결코 좋은 논증을 보장하지 못한다. 타당도와 건전성을 대신하여, 비형식 논리학자들은 강도와 설득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논증을 관련성(relevance), 충족성(sufficiency), 수용가능성(acceptability)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더욱이, 형식 논리학에서 형식과 평가가 관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형식 논리학에서는 논증 구조와 평가가 관련되어 있으며 비형식 논리학자들은 그들의 평가에서 주요 도구로서 다이어그램 기법을 채택한다.<sup>9)</sup> 이와 같은 핵심적 아이디어가 발전함으로써 비형식 논리학은 내용과 방법론을 갖춘 학문으로 성장하였다.

#### (4) 산물 지향 관점의 문제점

형식 논리학에서 나타나는 바, 산물 지향의 관점에서 보이는 많은 문제점은 비형식 논리학의 대두로 인하여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적응성’과 ‘관련성’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적응성의 문제란 형식 논리학이 맥락을 사상하고 논증의 타당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러한 논증 판단의 기준이 일상의 담화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

9) 한 동안 수능 시험에서 문단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사용되곤 하였고, 교수학습 이론에서도 ‘도해 조직자(graphic organiser)’의 한 형태로 활용되기도 한다.

점이다. 비형식 논리학에서 이런 문제는 부분적으로 해결되지만 비형식 논리학 역시 맥락에 항상 민감하지는 않으며 특히 청중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관련성의 문제란 전제가 결론을 함의(entailment)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명제적 관련성에만 국한될 뿐이다. 관련성에 대한 형식 논리학의 설명은 맥락 즉, 청중의 특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sup>10)</sup> 형식 논리학과 비형식 논리학 모두는 비록 후자가 전자에 비해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는 했지만 관련성에 대한 완전히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였다(Tindale, 1999: 28-37).

## 2) 실용-대화론적 접근

### (1) 반 에머렌과 그루텐도르스트의 실용-대화론

실용-변증론은 암스테르담 대학의 반 에머렌과 그루텐도르스트가 개발한 논증 이론이다. 이 이론은 오스틴과 설의 화행 이론, 그라이스의 일상 담화의 논리학, 로렌젠의 대화 논리학, 바르트와 크라베의 형식적 대화론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실용-대화론(praga-dialectics)'이란 이러한 학문적 기반을 반영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van Eemeren and Grootendorst(1984, 1992)에 따르면, 논증활동은 의견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의 사용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들은 의견의 차이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비판적 토의는 '대립(confrontation), 개시(opening), 논증활동(argumentation), 결론(concluding)'의 네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보았다. 토의 과정에서 토론자는 의견의 차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변증법적 절차의 규칙들을 각 단계에서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비판적 토의를 이와 같이 절차와 규칙의

10) Tindale(1999: 101-112)은 Sperber and Wilson(1986)의 '인지적 환경' 개념을 염두에 두고 관련성의 개념을 '전제 관련성(premise-relevance), 맥락 관련성(contextual-relevance) 또는 화제 관련성(topic-relevance), 청중 관련성(audience-relevance)'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논리학에서의 관련성은 PPC(대전제, 소전제, 결론) 구조에서 명제들 간의 관계만을 다루는 '전제 관련성'이라는 제한된 의미만을 갖는다.

관점에서 정의함으로써, 논증 담화를 다루는 발견적, 분석적, 비판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sup>11)</sup> 이러한 목적으로 그들은 비판적 토의를 위한 10가지 규칙을 제시하였다.<sup>12)</sup>

그들은 이 규칙들이 비판적 토의를 위한 대화론적 절차를 실질적으로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계들에서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화행들을 상세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그들에 따르면 논증 담화에서 수행될 수 있는 화행은 단언(assertives), 지령(directives), 위임(commisives), 정표(expressive), 공표(declaratives) 등 다섯 가지이다. 예를 들어, 단언은 대립 단계에서 입장을 표현할 때, 논증 단계에서 논증을 개진할 때, 결론 단계에서 입장을 유지 또는 철회하거나 결과를 결정할 때 수행된다.<sup>13)</sup>

실용-대화론적 분석은 의견의 차이를 해결하여 결론에 이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행들을 모두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증적 담화의 재구성은 수많은 전문적인 분석 작용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의견의 차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화의 요소들을 식별하는 데서 도구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은 삭제(deletion), 부가(addition), 교환(permutation), 대치(substitution) 등 네 가지 유형의 체

11) 발견적이라 함은 논증 담화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에 관한 것이며 분석적이라 함은 무엇이 적합한 분석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며 비판적이라 함은 실제 담화가 분쟁의 해결을 얼마나 지향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이다.

12) 10가지 토의 규칙은 van Eemeren and Grootendorst(1992:208-209)를 참고할 것. 그 중 몇 가지만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각 참여자는 서로가 입장을 개진하거나 입장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규칙 1),' '입장을 제시하는 한쪽 참여자는 상대방이 요청할 경우 방어할 의무가 있다(규칙 2),' '한쪽 편 참여자는 전제를 일정한 출발점으로 잘못 제시해서는 안 되며 인정된 출발점을 나타내는 전제를 부인해서도 안 된다(규칙 6),' '입장의 방어에 실패한 경우 입장을 철회해야 하며, 입장을 최종적인 방어하면 그 입장에 대한 상대방의 의혹은 철회되어야 한다(규칙 9).'

13) 반 에머렌과 그루텐도르스트는, 정서의 표현과 관련된 '정표' 화행은 논증 담화에서 분쟁의 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비판적 토의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계적인 변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변형 방법은 담화의 인식에서 상향식 모형을 암시하는 것이지만, 텍스트에서 논증의 요소를 재구성하는 데에는 Brinker(1992)류의 하향식 모형도 상향식 모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sup>14)</sup>

원칙적으로, 10가지 토의 규칙은 비판적 토의를 위한 분명한 표준 또는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칙을 위반하는 어떤 화행을 수행하는 것은 의견의 차이를 해결하는 데 위협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부정확한 토론의 진행(move)으로 간주된다. 실용-대화론적 관점에서 오류의 정의를 내리자면 그것은 의견의 차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치거나 좌절시키는 화행 다시 말하면 토의 규칙을 위반하는 화행이라고 할 수 있다.

오류를 비판적 토의를 위한 규칙의 위반으로 보는 실용-대화론적 분석은 이른바 오류의 표준 처리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가령, 인신 공격의 오류, 공포 또는 정황에 호소하는 오류, 피장 파장의 오류 등은 규칙 1의 위반에서 비롯되며,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 순환 논증, 복합 질문의 오류 등은 규칙 6의 위반에서 비롯된다.

비판적 토의의 모형은 하나의 추상, 즉 이상적 해결을 지향하는 담화를 위하여 이론적으로 동기화된 체계이다. 그것은 실제 논증 담화의 해석과 재구성 그리고 논증적 행위에 대한 평가를 위한 틀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것은 논증의 실천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표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유토피아적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논증적 담화를 통하여 의견의 차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이고도 중요한 행위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규칙들을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는 형이상학적 필연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의도하고 있는 일, 즉 논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그것은 어떤 외적인 권위나 신성불가침의 기원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냐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규칙을 받아들이는 일

14) 이에 대해서는 이성만(역)(1994)과 졸고(2000)를 참고할 것.

은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실용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왈튼의 기능적(機能的) 접근

Walton(1991)은 표준 처리(Standard Treatment)<sup>15)</sup>의 원천으로 되돌아가 반 에머렌과 그루텐도르스트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실용적인 오류의 개념을 제안한다. 그는 오류를 소피스트적 전술형 오류와 추론 실패형 오류로 나눈다. 전자는 논증적 대화에서 규칙을 깨고 파괴함으로써 합리적인 대화의 목적을 차단할 목적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이며, 후자는 대화의 맥락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오류이다.

왈튼은 논리학의 역사 속에서, 오류는 늘 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 ‘추론의 실패’라는 오류의 관념이 두드러지게 되었다고 본다.<sup>16)</sup> 표준 처리에서 강조된 것도 바로 이것이다. 소피스트적 전술형 오류 즉 대화론적 과실(dialectical fault)을 포함하는 오류의 의미는 역사로부터 제거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왈튼의 오류 이론은 반 에머렌과 그루텐도르스트의 오류 개념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왈튼의 관점에서 보면, 참여자가 논증적 토의의 맥락에 적용되는 대화의 규칙을 위반하면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오류는 논증 형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에 있다.

그러나 왈튼은 자신이 반 에머렌과 그루텐도르스트의 오류 개념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한다. 왈튼에 따르면 오류는 합리적인 대화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 이상이다. 오히려 모든 규칙의 위반이 오류인 것은 아니다. 오류를 구성할 만큼 심각하지 않은 과실이나 다른 종류의 잘못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반 에머렌과 그루텐도르스트는 ‘실책(blunder)’과 ‘오류(fallacy)’를 구별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논증을 그것이 불완전하거나 논거가 확실하지 않은 추측에 기초하고 있다

15) ‘표준 처리(Standard Treatment)’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전개되어 온 오류에 대한 접근법들에 대한 Hamblin(1970)의 포괄적인 명명이다.

16) Walton은 그것을 ‘독화론적 과실(monolectical fault)’이라고 부른다.

는 이유로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오류’에 대한 비판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논증이 단지 약하다거나 부적절하게 뒷받침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왈튼은 결론을 내리면서 오류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오류는 (1) 논증이며(또는 적어도 논증이 되고자하는 무엇이며); (2) 몇 가지 정확성의 표준에 미달하며; (3) 대화의 맥락 속에서 사용된다; (4)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맥락 속에서 정확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며; (5) 대화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Walton, 1995: 255).

### (3) 절차적 접근의 문제

반 에머렌과 그루텐도르스트는 그들의 분석을, 합의에 이르거나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도자와 반대자 사이의 논쟁의 해결에 관한 대화론적 관심에 한정시키고 있다. 그리고 오류는 오직 관련된 두 집단 사이의 토의에 연결되어 왔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이러한 시나리오에 꼭 맞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실용-대화론적 프로그램은 해결 지향적이지 청중 지향적이지 아니다.

실용-대화론에서 제안하는 규칙은 단순히 이상적으로 가정된 것이 아니라 논증적 담화를 통하여 의견의 차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천적인 행위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규칙이 실용론적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이 보편적으로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에서도 유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규칙들은 규범으로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의 장에 참여하는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사실 ‘10가지 규칙’은 매우 실용론적이고 대화론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경험적이고 관습적인 준거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가령, 토론 참여자 간의 인지적 수준의 차이, 경험의 차이, 사회적 관계, 문화적 금기 등에 의해서 가해지는 제약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류와 관련된 이론에 있어서도 그것이 어떤 보편적인 규칙의 위반으로 정의되는 한 그 규칙의 맥락적 적합성 또는 청중과의 관련성

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설명적 타당성이 있는지 재고할 여지가 생긴다.

### 3) 수사학적 접근

#### (1) 신수사학

신수사학이라는 용어는 Perelman과 Olbrechts-Tyteca가 자신들의 논증 이론에 대하여 붙인 명칭인데, 이들의 저작은 *La Nouvelle Rhétorique: Traité de l'Argumentation*<sup>17)</sup>(신수사학: 논증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저서로 1958년에 출판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페렐만에 따르면 '실증적 경험론'과 '합리적 관념론'에 대한 반작용의 성격을 띤다.<sup>18)</sup> 논리 실증주의는 독일의 관념론에 반하여 일어난 철학적 사조였지만, 그것은 학문을 인간의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합리주의에 따르면 인간 지식의 원천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것은 '경험'이 아니라 '이성'이다. 페렐만은 '관념론'에 기반을 둔 '합리주의'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서 신수사학은 일상어에서 논증을 연구한다. 그들은 일상어에서 비형식적이고 비분석적인 논증의 실천에 주목함으로써 실제로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종류의 논증들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고전 수사학과 대화술(dialectical technique)을 하나의 틀 안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대화술은 논증의 기법에 관련된 이론이고, 수사학은 대화술이 사람들을 확신시키거나 설득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주는 실용적인 학문이다. 신수사학에서는 고전 수사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논증이 의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결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설계되는 것이라고 가정된다. 그래서 이 두 수사학에서는 청중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수사학적 관점에서, 논증의 건전성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17) 영역판은 *The New Rhetoric: A Treatise on Argumentation*이라는 이름으로 1969년에 출판되었다.

18) van Eemeren et al.(1996: 94)은 페렐만이 언급한 '실증적 경험론'은 논리 경험주의 내지 논리 실증주의(또는 후기 실증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지향하는 청중에게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의존한다.

고전 수사학은 주로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하며 특정한 목적이 있는 웅변이나 논쟁과 관련되고 주로 정치적이고 법적인 문제에 관한 것을 다루었다. 그러나 신수사학에서는 구어적, 문어적 의사소통을 모두 다루며 어떤 규모의 청중에게도 전달될 수 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라도 논증할 수 있다. 그리고 신수사학에서의 청중은 실제적 청중뿐만 아니라 이상화된 청중의 개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고전 수사학과 신수사학은 논증의 건전성에 대한 기준이 일치하기 때문에, 즉, 논증의 건전성에 대한 기준을 청중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청중 개념과 관련된 난해성에 대해서 같은 비판을 받곤 한다.

페델만과 올브레히츠-티테카는 『신수사학』에서 ‘논증의 틀, 논증의 출발점, 논증의 기법’이라는 세 장을 설정하여 논증 이론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신수사학, 즉 논증 이론의 목표를 ‘평가 받기 위하여 제시된 테제에 대한 정신의 지지를 이끌어 내거나 증대시켜 주기 위한 논변적(discursive) 기법에 대한 연구’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형식 논리학에서 논증의 건전성에 대한 판단이 평가자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에 비하여 신수사학에서는 그 기준이 논증이 지향하는 바 청중에게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형식 논리학에서 사상하고자 했던 맥락의 복원을 의미한다.

이들은 청중의 개념을 보편적 청중(universal audience)과 특수한 청중(special audience)으로 구별하는데, 전자는 ‘확신시키는(convincing)’ 논증과 관련되며 후자는 ‘설득하는(persuasive)’ 논증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설득하는 논증이란 논증자가 청중에게 설득력 있는 믿음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논증이며 확신시키는 논증이란 논증자가 청중의 직접적인 행동의 유발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논증이다. 말하자면 설득하는 논증은 특수한 청중의 찬동을 얻어내며, 확신시키는 논증은 보편적 청중의 찬동을 얻어낸다. 어떤 논증이 성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청중의 특성에 적합한 논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한 청

증을 상대로 확신시키는 논증을 하거나 보편적 청증을 상대로 설득하는 논증을 하는 것은 좋은 논증이 될 수 없다.

페렐만과 올브레히츠-티테카는 일상어에서 실제 성공적인 논증의 기법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실상 그들은 그러한 기법을 기술했다기보다는 일정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논증 도식(argumentation scheme)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증 도식들이 청증들에 맞게 조율된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논증 기법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의도로 그들은 먼저 논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전제들을 분류한다. 그들은 전제를 두 부류로 나누는데 '실제(the real)'와 관련된 전제와 '선호(the preference)'와 관련된 전제가 그것이다. 실제와 관련된 전제는 보편적 청증에 의해서 주장이 인정되며, 선호와 관련된 전제는 특수한 청증의 선호와 관련되어 있다. 전자의 부류에는 사실, 진리, 가정 등이 포함되며 후자의 부류에는 가치, 가치 층위, 말터(loci)<sup>19)</sup> 등이 포함된다.

논증의 출발점은 항상 여러 가지 전제 또는 전제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논증자와 청증은 (1) 전제의 지위, (2) 전제의 선택, (3) 전제의 언어적 표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논증의 성공과 그것의 수사학적 건전성을 위해서는 출발점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논증자들은 단순히 청증이 지정하지 않는 가치를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청증들이 실제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거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청증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9) '말터'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에서 사용된 'topos'의 복수형 'topoi'의 라틴어 loci에 해당하는 번역어이다. '말터'라는 번역어의 출처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원 뜻을 비교적 잘 드러내 주는 용어로 판단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서 '말터'는 일련의 논증 기법을 가리키는 말로서, 논증에서 공격자가 자신의 논거를 얻을 수 있는 '장소'의 의미에 가깝다. 동시에 '논증 도식, 논증 기법, 절차' 따위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topos를 '진행(move)'으로 번역하는 학자도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van Eemeren(1996: 38)을 참고할 것.

페렐만과 올브레히츠-티테카는 이어서 논증의 효과적인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논증의 도식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명제를 좀더 수용성 있게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논증의 종류에 대한 유형학이 포함되는데, 그들은 이러한 논증 도식을 말터의 특별한 부류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논증의 기법이 연합(association)과 분리(dissociation)라는 두 가지 원리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연합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요소들 간에 가교를 놓음으로써 요소들을 하나의 전체로 통일시키는 것이고, 분리는 전체로 존재하는 것을 해체하여 하나의 전체로 간주되었던 요소들을 분리하는 것이다.<sup>20)</sup>

신수사학의 기초를 놓은 이들의 야심은 모든 비분석적 사고의 틀을 창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합리성의 기준을 청중에게 줌으로써 극단적인 상대주의적 합리성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대주의는 페렐만의 논증 이론을 ‘신사회철학’ 또는 ‘사회 개혁의 비판적 도구’로 보게 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청중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 (2) 정서, 맥락, 청중와 논증활동

철학에서 합리주의를 강조하면서 정서적 요인을 배제해 온 전통은 논증활동에 부여되는 인간의 정서와 경험을 중시하는 수사학에 의해서 도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이성(理性)이 감정과 관련되는가에 대하여 진지한 주의가 기울여졌다. 이러한 연구의 관심사는 수사학적 논증활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서에 부여했던 중요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수사학』 제1권 제1장에서는 수사학적 논설들에서 정서적 호소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에 대하여 경고하면서도 그 다음 장에서는 과토스를 로고스 및 에토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20) 신수사학의 분류는 일상어의 논증을 비분석적인 방법으로 유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erelman and Olbrechts-Tyteca(1969: 제3부)를 참고할 것.

일단 우리가 타당한 논증을 연역적 패러다임에 국한하는 데에서 벗어나면, 논증활동에서 정서적 호소를 정당화하는 많은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Brinton(1988)은 노여움, 분개, 연민 같은 정서가 어떻게 정의(正義)와 본질적인 관련성을 공유하는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정서는 우리가 정의롭지 않은 무엇에 적절하게 반응해야 하므로, 좋은 성격(에토스)과도 연결된다. 이것은 확실히 정의(正義)에 대한 이성(理性)의 관계가 공평성과 객관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생각에 도전한다. Tindale(1999: 74)은 논증활동에서 性格(character)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브린튼(1986)의 용어인 에토스적 논증(Ethotic Argument)을 받아들인다.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성격에 호소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합한 권위의 호소와 인신공격(ad hominem; 또는 정황에의 호소, 피장파장) 양쪽 모두에 관련이 있다. 그러나 에토스적 논증은 이들 각각의 의미보다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좋은 성격을 지닌다는 것은, 믿을 만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어떤 권위의 호소가 작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에서, 이런 성격의 표본은 실제적인 지혜, 탁월성, 그리고 선의를 드러낸다.

가령,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충고한다면 그의 성격은 그러한 충고의 논거(reason)인가? 브린튼(1986: 251)에게는 그 대답은 긍정임에 틀림없다. 소크라테스의 찬성이나 불찬성이 그 행동을 숭고하게 하지 않지만, 비상한 지각을 지닌 숙고자, 그리고 판정자로서의 그의 지위는 우리 자신의 지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논거를 강화한다. 소크라테스의 에토스는 그 행동을 하는 근거로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특수한 종류의 논거를 제공한다. 이런 종류의 에토스적 논증이 견고하게 기초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 그리고 그 개인의 성격이 관련있는 방식으로 호소되는 곳에서 이런 논증은 합법적이며 오류가 아니다.

논증의 전통이 부활하면서 논증 이론가들은 논증이 발생하는 맥락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비형식적 논리학의 산출 지향적 접근법을 취하

는 이들조차도 핵심적인 PPC의 구조를 넘어서려고 시도하면서 이 점을 공유한다. Johnson(1995)은 논증활동을 복잡한 사회문화적 활동이라고 칭한 바 있다. 수사학적 관점에서 탐구의 대상은 사회적 맥락이다. 말하자면 논증활동은 사회적 관계의 한 특성이며, 그 관계들의 복잡성에 한 몫을 한다. Tindale(1999)은 맥락의 주요 요소를, ① 논증이 위치하는 시간과 장소를 의미하는 시공간(locality), ② 논증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건들 즉, 배경(background), ③ 개인 또는 한 집단이 될 수 있는 논증자(arguer), ④ 논증의 구성, 확인, 재구성, 그리고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현(expression), 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청중은 페렐만의 신수사학에서 결정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청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논증활동을 그것의 효과성, 즉,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그것의 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청중이 없는 담화는 없기 때문에, 수사학적 효과가 없는 논증활동은 없다.

페렐만은 청중의 중요성을 네 가지 면에서 지적한다. 첫째, 청중은 복잡하다. 청중은 '화자가 자신의 논증으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집단'(Perelman, 1982: 14)으로 정의된다. 둘째, 청중은 논증활동의 과정에서조차도 변화한다. 이것은 청중의 구성뿐만 아니라 태도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말이다. 셋째, 청중은 논증활동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청중은 추론을 위한 가정에 기여하고 논증자의 마음 속에서 또는 논증자와의 대화 속에서 논증활동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논증은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 의하여 판정되고 평가된다. 논증활동의 목적은 그 주장에 대한 청중의 지지이다. 이것이 달성되는 정도에 따라 강하거나 약한 것으로 판정될 것이다.

페렐만은 보편적 청중을 통해 이성애 호소하는, 그리하여 확신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철학적 담화와 특수한 청중을 단지 설득하려고만 하는 효과적인 담화를 구별한다. 이것은, 수사학이 어떠한 수단이든 사용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것에 만족한다는, 전통적 비판으로부터 신수사학을 구별해 주는 부분이다.

반 에머렌과 그루텐도르스트가 설명하듯이, 페렐만은 논증활동의 건

전성을 청중이 결정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분별성(reasonableness)의 표준이 극도로 상대적임을 뜻한다. 극단적으로, 청중이 존재하는 만큼의 분별성의 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보편적 청중을 그 분별성의 원리로 소개하는 것은 관심의 근원을 논증자에게로 옮길 뿐이다. 보편적 청중은 논증자의 정신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이제 논증자의 수만큼 분별성의 정의가 존재할 것이다.

### (3) 수사학적 접근의 문제점

논증에 대한 수사학적 접근의 특성은 산물 지향의 논리학적 관점이나 절차 지향의 실용-대화론적 관점에 비해 그 맥락을 가능한 한 풍부하게 복원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수사학적 접근법의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 된다.

수사학적 관점에서는 논증에 대한 판단의 최종적인 근거를 청중에게 두는데, 청중의 개념은 매우 복잡하고 가변적이며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 신수사학에서처럼 청중을 특수한 청중과 보편적 청중으로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소위 보편적 청중의 개념이 문제가 되는데, 신수사학에 따르면 보편적 청중은 특수한 청중으로부터 추상된 개념이지만, 그것은 논증자 자신일 수도 있으며, 논증자와 대화를 주고 받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다. 맥락이 중시된다면 맥락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보편적 청중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실용-대화론적 관점에서 논증의 절차에 주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청중 개념의 모호성과 상대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더 나아가 논리학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맥락 자체가 논증의 해석과 평가에 걸림돌로 인식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논증의 연구에서 맥락을 포기할 수는 없다. 문제는 맥락 특히 청중을 논증 연구에서 어떻게 좀더 정교하게 개념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턴테일(1999: 95-123)은 관련성과 수용가능성의

문제를 언급한다. 관련성이란 단순히 명제적 관련성이나 화제 관련성만이 아니라 논증자와 청중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인지적 환경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중의 문제 중 상당 부분은 인지적 환경의 문제로 환원되는데, 틴데일은 인지적 환경으로 다음 여섯 가지 특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지적 환경은 우리에게 명백한 일련의 사실들이다. 둘째, 우리의 인지적 환경은 서로 다르다. 셋째, 인지적 환경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정들을 포함한다. 넷째, 중복된 인지적 환경은 (상호 간에 명시적으로) 공유된 인지적 환경을 유발한다. 다섯째, 인지적 환경의 경계는 항상 부정확하다. 여섯째, 상호적 명시성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상식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명료화한다. 이러한 관점은 청중의 개념이 모호하거나 상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논증을 청중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논증이 인지적 환경 및 그 환경을 수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청중과 무관한 논증은 실패하거나 매우 빈약한 논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여 논증에 대한 평가를 청중과 그들 자신의 수용기준에만 의존하는 것은 청중에 대한 수사학적 논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논증 이론에서 청중에 대한 인식론적 과제를 제기한다. 블레어(1987: 50)는 ‘모형 참여자 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논증활동은 만일 그것이 합리적이려면 ‘토론하는 주제에 대한 잘 알려진 신념을 견지하는 대화 참여자의 공동체’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실제의 청중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상화된 청중인데, 이것이 페렐만이 의미하는 바 보편적 청중의 개념을 좀더 정교화하였다는 점을 제외하면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2. 논증 이론의 전망

한 학문이 독자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유한 연구 대상과 방법론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논증 이론은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기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인 논증 현상을 보는 관점, 그

리고 논증 현상을 다루는 방법론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van Eemeren(1994: 3-8)은 논증활동에 대한 연구를 '규범적 실용론(normative pragmatics)'으로 간주하면서, 논증 이론에서 보편적인 연구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 '(1) 철학적 연구: 논증활동과 분별성(reasonableness), (2) 이론적 연구: 논증활동을 다루는 모형, (3) 분석적 연구: 논증적 담화의 재구성, (4) 경험적 연구: 논증적 실천의 기술(describing), (5) 실제적 연구: 논증의 실재를 개선'의 다섯 분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논증활동에 대한 연구가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sup>21)</sup>

이러한 논증 연구의 요소들은 학제적인 관점에서 상호 협력적으로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신들의 분야를 개방하고 다른 분야의 연구 결과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각 요소들의 확실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각 분야의 독자적인 연구와 실천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각 요소들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천착은 다른 요소들의 연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Olbrecht-Tyteca의 신 수사학, Meyer의 문제학(problematology), Willard의 사회적 인식론, Blair와 Johnson의 비형식 논리학, Woods와 Walton의 오류에 대한 탈표준적 접근법, Grize의 자연 논리학, Barth와 Krabbe의 형식적 대화론, van Eemeren과 Grootendorst의 실용-대화론 그리고 그 밖의 연구들은 그러한 다양한 출발점을 이루고 있는 이론들이다. 이러한 이론들간의 학제적 연구를 통한 논증 이론의 정립이 오늘날 이 분야의 학자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과제이다.

---

21) 각각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의 실재에 대한 개관은 van Eemeren(1994: 4-7)을 참고할 것. 이 책에는 각 분야에 해당하는 21편의 소논문이 편집되어 있다.

## IV. 국어 교육을 위한 과제 설정

### 1. 반성과 전환

국어 교육이 자연 언어의 하나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와 내용으로 삼는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국어'가 무엇인지, 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로 근래 제4차 교육 과정에서 제7차 교육 과정까지의 목표와 내용에는 그러한 상이한 관점들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의 혼재는 국어 교육의 바탕 학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교육 과정의 내용 구성은 때로는 이론 없는 실천의 나열 또는 조화되지 않은 이론들 간의 간극을 노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어 교육학을 하나의 학문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도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이론에 기대어 '국어'를 설명하려 하거나 '국어 교육' 실천을 끌어내고자 조급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어 교육학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어'와 '국어 교육'의 제반 현상을 기술하고 실천하는 데 학제적으로 기여할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각 분야의 이론과 실천들을 깊이 있게 천착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본고에서 논증 이론의 현황을 검토해 본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언어 사용의 한 양상으로서 '논증'에 대한 국어 교육의 실천은 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비판적 사고' 또는 '논리적 사고'라는 범주 아래 다루어져 왔거나 대학 입학 전형 과목의 하나로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논리적 사고와 관련된 평가 목표들은 초기의 열망에 비해 그 비중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논술' 시험은 그 정착을 보지 못한 채 '구술' 시험이라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국어 교육에서 ‘논리’나 ‘논술’이라고 하는 영역의 실천을 담보할 만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실천이 표류하거나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물론 ‘논술’이든 ‘구술’이든 문제될 것은 없다. 사고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그러한 전환이 요구되는 교육 내적, 외적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적 검토가 없이 그러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논증과 관련하여 또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소위 교수 학습 및 평가에서 ‘수행’에 대한 강조이다. 특히 제7차 교육 과정이 시행되면서 수행 활동과 평가가 각 교과마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강조점은 학교 현장의 물리적, 제도적 여건과 관련하여 현장에 적용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필자가 보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각 교과에서 그러한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국어 교육에서 ‘토의 토론’ 학습이 강조된다고 할 때, 우리는 ‘토의 토론’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며 ‘토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하는 것이다. 또 ‘글쓰기’ 지도를 한다고 할 때에도 우리가 글쓰기의 일반적인 인지적 과정이나 절차를 지도하거나 좀더 나아가 몇 가지 문종의 텍스트 구성 원리를 가르치거나, 교정 지도를 해 주는 것만으로 학습자의 ‘글쓰기’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문제는 다양한 글쓰기 양식들을 그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밝혀 내고 그것을 교육적으로 조직해 낼 수 있느냐이다.

이러한 목표 설정은 글쓰기뿐만 아니라 읽기, 말하기·듣기, 언어, 문학 등 제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언어 즉 국어지식 영역만 하더라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국어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를 교육 내용으로 선정해 왔다. 그러나 ‘국어 지식’의 내포와 외연은 언어 또는 국어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르쳤

다고 믿는 국어지식의 내용은 실상 우리가 국어를 안다고 할 때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의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볼 수 있다. 가령, 형태나 통사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언어 사용 과정의 총체적 국면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다. 국어 교육을 연구한다는 것은 좀더 총체적인 국면에서 '언어 사용자로서 인간'을 연구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총체적 인간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이제까지 국어 교육이 제한적으로 국어 사용의 문제를 다루어 온 바 형식적(formal) 관점을 지양하고 좀더 기능적(functional)이고 비판적인(critical) 관점을 견지해야 함을 의미한다.<sup>22)</sup>

형식적 관점 즉, 형식주의(形式主義)라 함은 국어교육에서 언어를 그것이 생산되고 수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을 사상하고 하나의 체계나 구조로서만 다루려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경향은 언어학에서는 구조주의 언어학 및 생성 언어학으로 나타났으며, 문학에서는 신비평과 같은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 보기에 따라서 이러한 이론은 그 자체로 각각 언어학과 문예학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또 실제로 우리가 언어나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공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향이 교육의 장에 적용될 때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한 그것은 교육 실천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언어 사용 영역에서 기능(技能)에 대한 강조 또한 이러한 형식주의적 편향을 유도할 가능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

기능주의(機能主義)란 범박하게 말해서 언어 사용 과정을 언어 사용자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사용 행위로 보는 안목을 말한다. '기능(機能)'을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보는 관점은 또 다른 의미에서 언어를

22) 보그랑드(1997)는 현대 언어학의 주류와 비주류의 경향을 '형식주의'와 '기능주의'로 구분하고 언어 연구에 있어서 기능주의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는 교육 문제를 논의하면서도 획일화된 형식주의적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적 기능주의를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 이러한 지향성은 신과학적 세계관과 후기구조주의적 인식론을 반영한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그러한 교육사회학적 관점과 궤를 같이 한다.

도구화하고 형식화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구조주의 언어학의 성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바 언어가 이루고 있는 구조와 체계는 그것이 기계적으로 합성과 분할을 한다고 보지만 않는다면 언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언어의 구조적 단위들은 선형적으로 더 작은 단위가 더 큰 단위의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만은 아니며 언어 사용자의 인지적, 사회적 제약에 대한 통제를 거쳐 동시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텍스트과학의 연구 성과를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언어의 단위가 단지 문장이나 그 연쇄체로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사소통적 사건 그 자체 즉 텍스트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언어를 텍스트와의 관련성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언어 사용은 항상 일정한 사회 문화적 맥락과 구체적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기 위한 인지적이고도 사회적인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국어 교육은 기능주의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비판적 문식성(critical literacy)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비판적(批判的)이라는 말에는 항상 어떤 대상과 기준이 전제되며 가치판단이 수반된다. 근래 ‘비판(평)적 주체’, ‘비판적 문식성’, ‘비판적 사고’, ‘비판(평)적 읽기’ 등의 개념 또는 활동과 관련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후기구조주의적 인식론을 반영하는 것들로 그간의 국어 교육의 ‘객관주의’ 내지 ‘형식주의’로의 편향에 대한 반성적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비판적 사고’라는 개념은 듀이의 ‘반성적 사고’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으로서 그것은 ‘어떤 신념이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관점에서 가정된 지식의 형식 그리고 나아가 그것이 기울어지는 결론에 대한 능동적이고, 영속적이며, 주의깊은 고려’를 의미한다.<sup>23)</sup> Ennis(1989: 1)에 따르면 비판적 사고란

23) ‘비판적 사고’라는 말은 글래이저가 교육 개혁의 테제를 주창하기 위하여 1940년대 초기에 채택한 화두였다. 1970년대까지 그것은 미국에서 교육 운동의 초점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태도의 지성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그것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기능(skill)과 함께 추구되어, 교육 현장에서 중심적인 항

‘믿거나 해야 할 것을 결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합리적이고 반성적인 사고’이다. 비형식 논리학자인 Johnson(2000)은 비판적 사고를 ‘문제 해결’, ‘초인지’, ‘의사 결정’, ‘고도의 인지 기능’과 같은 용어를 포함하여 ‘관련된 용어들의 네트워크’에 속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자기 인식과 세계 인식을 한다. 인간만이 언어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간은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 더 정교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하여 다른 인간과 환경과 교호작용을 해 나간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외부 세계와 물질 및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고받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재귀조직을 해 나가지만, 그러한 질료기반 위에서 인간은 정보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세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적응해 나간다. 그러한 의미 부여 행위를 담보하는 것이 바로 언어인데, 그런 의미에서 언어는 ‘적응적 행위 공간’(adaptive action space)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sup>24)</sup>

세계 그 자체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계 모형 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에서 이해자나 해석자의 임무는 단지 의미를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를 제어하는 것이다. 국어 교육이 비판적 문식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주체와 주체, 주체와 세계 사이에서 구성되고 소통되는 의미를 언어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실천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접하고 있는 또는 장차 접하게 될 구체적인 언어 자료들을 통해서 제공되는 의미들을 어떻게 제어해 나갈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국어 교육이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취하면 국어 교육은 다양한 학습자들을 위한 다양한 언어 환경을 획일화하는 대신에 그들의 환경과 요구에 부합한 언어 자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 언어를 통하여 지지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말

---

목으로 간주되었다. 비형식 논리학의 대두는 한편으로는 화용론과 같은 학문적 조류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교육 운동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24) 언어를 ‘적응적 행위 공간’으로 보는 견해는 Beaugrande(1997: 102-129)를 참고할 것.

그대로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문명사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 및 전망과 관련하여 필자는 국어 교육에 이러한 비판적 문식성을 교육 내용으로 담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논증 이론에 주목한 바, 이것이 국어 교육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기초 연구 과제

### 1) 논증 이론의 모형 구안

우리는 앞서 논증에 접근하는 세 가지 접근법을 검토해 보았다. Tindale(1999)의 관점에 따르면 산물 중심의 논리학적 접근이나 절차 중심의 실용-대화론적 접근보다 과정 중심의 수사학적 접근이 논증 현상을 설명하는 데 더 포괄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관점의 절대적 우위성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수사학적 접근법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논리학적 접근법이나 실용-대화론적 접근법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논리학적 접근법이나 실용-대화론적 접근법이 수사학적 접근법의 포괄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논리학적 접근법은 비형식 논리학의 발전적 자기모색의 결과로 화용론적 지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실용-대화론적 접근은 수사학적 조망이 제기하는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수정을 해 나가고 있다. 현대의 논증 이론이 이러한 세 가지 접근법을 일반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외에도 철학적, 언어학적, 사회학적 접근법들 또한 주목해야 할 대상들이며 새로운 접근법도 모색될 수 있다고 본다.

논증이 국어 교육의 장에서 다루어야 할 불가피한 내용 요소라면 그것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데 적합한 모형을 구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의 과제로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한 관점을 규범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법들을 실제 논증 담화에 적용해 보고 그 장단점을 경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국외에서 논의되어 온 방법론들이 우리의 논증 문화를 분석하는 데 설명적 적용력이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종래 언어 교육에서 텍스트에 대한 접근은 설명적 텍스트에 한정되어 있었고 대체로 텍스트의 표면적 자질이나 구조적 특질에 대한 분석과 지도에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르론적 관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장르론적 시각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더 넓혀 줄 것이다.

## 2) 논증 능력 발달의 연구

논증 능력은 언어적, 인지적 발달 단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피아제가 상정한 인지 발달 단계는 논증 능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어린 아동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이고 도구적인 조작을 하지 못하는가? 발달 과업을 상정하는 것은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 없이도 논증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논증을 인식하는 능력에서 “언어적 요소”와 “일반 지능적 요소”는 얼마나 독립적인가?

van Eemeren 등(1989)은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저학력 학급에서 2학년 학생들은 단순 논증을 잘 식별해 내지 못한 반면에 3학년 학생들은 더 잘 식별해 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논증 교육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또, 여러 유형의 논증 도식(argumentative schemes)의 발달적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주장과 근거, 원인과 결과 등 제한된 명제적 관련성만을 다루고 있으나 논증의 도식을 좀더 확대하여 그 발달적 분포를 살피고 이를 위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van Eemeren 등(1995)은 학생들을 상대로 표현되지 않은 전제와 논증 도식을 식별하는 능력을 지필 검사로 조사하였는데, 표현되지 않은 “대전제”가 “소전제”보다 더 잘 식별되었으며 인과적 논증은 징후의 논증보다는 더 정확하게 빈번하고도 정확하게 식별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근래 국어 텍스트 처리와 관련한 발달적 특성에 대한 연구<sup>25)</sup>는 국어

교육 실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 있는 성과이다. 이러한 발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논증 텍스트의 처리와 관련해서도 국어과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여기에는 논증 텍스트의 표지는 물론, 논증의 도식과 논증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처리의 과정에 대한 연구가 포함될 수 있다.

### 3) 논증 문화의 기술

문화는 '사회와 사회 집단이 한 사회 또는 사회 집단이 행동적, 인지적, 사회적 활동을 조직하는 총체적인 구조'로서 여기에는 인간의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떠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념과 태도까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문화를 연구하고 기술한다는 것은 특정 사회 집단의 행동적, 인지적,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체계 내적(emic) 관점에서 이루어질 때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그 집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때로는 문화의 변화 방향을 찾아보려는 의도를 반영하기도 한다. 우리가 국어 교육에서 논증 문화의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위기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 언어 문화의 방향성에 대한 모색을 전제하는 것이다.

윤무학(역)(1998)에서는 공자 이래 문화 혁명기까지 중국인의 논리를 분석해 보였는데, 전통적으로 조화로운 세계를 이상으로 하는 경학적(經學的) 사고를 바탕으로 '술이부작(述而不作)'이라는 사고 양식을 보여왔고 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경학적 사고인 도가적 사고 패턴도 존재해 온 것으로 보았다. 모택동에 의해 제기되었던 '모순론'은 '차이'를 '모순'으로 보면서, '하나가 나뉘어 둘이 된다'는 이론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혁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사실 매우 범박한 것

---

25) 김봉순(2000)은 초·중·고 11개 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텍스트 구조에 대한 인지도의 발달적 특성을 밝혔고, 이성영(2000)은 초등학생의 텍스트 구성 능력을 중심으로 글쓰기 능력 발달 단계를 연구한 바 있다.

이지만 현대의 중국인들 가운데 경서의 구절을 화두로 삼는 이들이 많은 것은 이러한 논증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오늘날 급격한 사회 문화적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언어 문화 가운데에는 전근대적 요인과 근대적 요인이 공존하면서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경어법의 문제도 그렇고, 권위에 호소하는 논증이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도 그렇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우리의 논증 문화에서는 로고스보다도 에토스나 파토스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화자와 청자 간의 원만한 관계 설정이 전제되지 않는 어떤 논증도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예를 들어, “그래, 네 말이 맞다만, 너 그 말하는 태도가 뭐니?” 이런 식의 표현은 우리의 논증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좀더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논증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 형성 우선의 문화를 우리가 교육적인 견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내용으로 구조화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이러한 문화현상들을 좀더 깊이 있게 기술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 3. 실용적 연구 과제

#### 1) 교육 목표의 설정과 내용의 구성

이론의 체계나 범주가 그대로 교육의 내용 범주와 체계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론의 요구와 실천의 요구가 만나는 곳에서 교육 내용이 설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논증 이론은 비록 그 역사가 수사학적 전통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 할지라도 논증 현상 전체를 설명해 주기에는 아직 제한점이 많다. 현대의 학문은 학제적 접근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논증 이론 역시 자연과학적 인식론이나 제반 텍스트과학을 좀더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패러다임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반 하에서 논증 이론은 국어 교육의 배경 학문의 하나로 자리매김될 수 있으리라고 본

다. 이러한 요청은 물론 국어 교육의 실천적 요구를 고려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국어 교육은 언어 사용의 제국면을 활동의 축으로 하면서 교육 내용을 주로 기능적 관점에서 구성해 왔다. 그 과정에서 언어 활동의 통합성이 강조되면서도 범주상으로는 개별화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더구나 국어지식과 문학이라는 영역 설정은 언어 활동과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그 내용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제 국어 교육의 내용 범주는 장르론적이고 텍스트과학적인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것이 언어 사용의 실체를 교육하는 데에 더 부합한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논증 이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논증 현상은 이해·표현의 언어 사용 국면과 구어적·문어적 제반 언어 현상을 포괄하는 것이며, 문학적·비문학적 언어 자료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의 구성은 제반 논증 담화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에 대한 좀더 포괄적인 연구에 기반해야 가능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논증의 장르론적 측면을 중심에 두고 그 텍스트 유형론적, 문화론적 내용을 통합적이면서도 위계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장르론적이라 함은 논증이 텍스트 그 자체와 텍스트 생산자, 해석자, 맥락을 그 구성요소로 갖는 유기적인 실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것이 특정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것은 문화론적 시각의 필요성을 함의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언어 자료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텍스트 유형론적 시각의 필요성을 함의하는 것이다.

## 2) 교수 학습 및 평가

논증 교육은 국어 교과만의 몫은 아니다. 교과에서 다루는 모든 지식은 절대 진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 지식들이며 나아가 학습자의 다양한 생활 경험은 논증적 사고를 요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어과 교육에서 논증 교육은 어떤 위상을 갖게 되는가? 국어과 교육에서 논증 교육이 그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라면 그것은 논증이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우선 국어과 교육에서는 논증 현상이 개재된 유의미한 언어 자료는 모두 다룰 수 있다. 여기에는 소위 ‘논설문’이나 ‘토의 토론’과 같은 유형에만 포함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언어 사용의 실재를 교육에서 다루고자 한다면 논증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논증’이 다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문학 작품 속에서, 그것이 우리 고유의 것이든 외국의 것이든, 현대의 것이든 고전이든 간에 그것이 생산된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 사고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문학 작품이 단순히 정서적 공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든 독자에 대한 설득을 목적으로 하며 그 주요한 경로가 논증활동을 통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자료들을 교수 학습의 자료로 다루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언어 활동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영역 간 연계 운영 또는 통합적 운영은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기술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의 교육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호주의 자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내용의 범주를 ‘텍스트, 상황 이해, 언어 구조와 특징, 전략’의 네 가지로 설정하고 이를 8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텍스트를 언어적, 사회적, 인지적 맥락에서 다룰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 것이다. 호주의 교육과정은 헬리데이를 근간으로 한 소위 ‘시드니 학파’의 장르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자국어 교육에서 텍스트의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제약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기술하고 있는지는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그들이 채택하고 있는 내용 범주는 논증 교육의 내용을 영역 통합 내지 연계의 틀 속에 구현하는 데는 매우 적응력이 있는 구도이다.

평가의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자. 최근 기존의 평가관에 대한 대안적 평가관으로 수행 평가 방식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관의 전환은 그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어떠한 간에 교육의 본질에 매우 부합한 것을 보인다. 우리가 체계로서의 언어의 실현체인 텍스트를 의사소통적 사건으로 보는 데 동의하는 한, 그리고 논증을 단순한 언어 구조물

이 아닌 의사소통적 행위의 한 양식으로 파악하는 한, 논증 능력 또는 논증 교육의 학습에 대한 평가는 출발점 및 과정과 성취 모두를 평가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논리적 사고 영역의 평가는 초기에는 주로 형식 논리학에 기반을 둔 평가 문항이 많았고 밴 다이어그램과 같은 논증 구조 도식을 선호하는 비형식 논리학을 적용한 문항도 출제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논증 요소를 재구성하는 문항보다는 대화나 토의 토론 담화에서 논리적 오류의 인식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보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논리적 사고 영역의 문항들은 주로 결과 지향의 논리학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항들은 대개 언어 자료 자체가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들이라는 점에서 자연 언어의 실제 맥락을 여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필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실용-변증론적 논증 이론이나 수사학적 논증 이론에서 중시하는 절차나 과정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논술 고사나 구술 또는 면접 고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 그 방안과 실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 V. 맺음말

앞에서 우리는 논증 이론의 현황을 논리학, 화용-변증론, 수사학의 범위 내에서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의 논증 이론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에는 매우 빈약한 것이다. 현대의 논증 이론은 위에 언급한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sup>26)</sup> 이러한 현상은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26)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소재한 국제 논증 연구 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Argumentation, ISSA)에서는 철학,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법학, 언어학, (고전 및 현대) 수사학, (형식 및 비형식) 논리학, 비

논증을 단순한 언어 구조물로서가 아니라 의사소통적 행위의 한 양식으로 보는 한 그것은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제 측면들을 포괄하는 다양한 접근 경로들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논증 이론은 국어 교육의 기반 이론의 하나로서 중요한 기여를 하리라고 본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 수사학을 국어 교육의 기반 학문으로 설정했던 시도는 국어교육학을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선도적인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전 수사학의 틀 내에 머물러 있었고, 지식 중심의 교육 과정이라는 틀 속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국어 사용의 실재를 담보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해 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어 교육과 수사학의 만남을 새롭게 조망해 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본고에서는 주로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증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들은 논증 현상의 보편적 측면을 조망해 주는 측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논증이 한국어라는 자연 언어로 이루어지는 한 우리는 우리의 논증 이론을 모색하고 그러한 터 위에서 교육의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어 교육이 언어 사용의 총체적 국면을 다루고자 하는 한 그것은 논증 이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언어에 대한 제반 학문의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어 교육학은 논증 이론 그 자체에 대한 모색과 그것의 교육적 적용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분야에 좀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와 실천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

판적 사고, 담화 분석, 화용론, 인공 지능 등을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배경이 있는 논증 이론가들이 모여 1986년 이래 4년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여기에서 발간된 자료집을 살펴보면 참여하는 이들의 학문적 배경만큼이나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 참고 문헌

- 고영근(1999), 『텍스트 이론: 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아르케.
- 김대행(1995),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봉순(2000), “학습자의 텍스트구조에 대한 인지도 발달 연구: 초·중·고 11개 학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02,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
- 김혜정(2001), “비판적 읽기와 텍스트 분석”, 『언어 교육과 텍스트언어학: 춘계 학술 대회 자료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21-43.
- 김호기(편)(2000), 『현대 사회의 비판 이론』, 한울.
- 민병곤(2000), “신문 사설의 논증 구조 분석”, 『국어국문학』 127, 국어국문학회
- 박성창(2000), 『수사학』, 문학과 지성사
- 박영목, 한철우, 윤희원(2001), 『국어과 교수 학습론』, 교학사.
- 엄훈(2000), “朝鮮 成宗代 토론 문화 연구”, 『국어교육』 103, 한국국어교육 연구회.
- 이대규(1998), 『국어 교육의 이론』, 교육과학사.
- 이성영(2000), “글쓰기 능력 발달 단계 연구: 초등 학생의 텍스트 구성 능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26, 국어국문학회.
- 이재기(2001), “주체, 이데올로기, 그리고 문식성 교육”, 『국어 교육 연구 방법론: 제15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국어교육학회. pp.13-39.
- 최인자(2000a), “장르의 역동성과 쓰기 교육의 방향”, 『문학교육학』 5, 한국문학교육학회.
- 加地伸行(1977)/윤무학(역)(1998), 『중국인의 논리학(中國人の論理學)』, 법인문화사.

Andrew, R.(1995), *Teaching and learning agument*. N.Y.: Cassell.

Asher, R. E.(ed.)(1994),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 linguistics*. Oxford, New York, Seoul, Tokyo: Pergamon Press Ltd.
- Beaugrande, R. de(1997), *New foundations for a science of text and discourse: cognition, communication, and the freedom of access to knowledge and society*. N.J.: Ablex Pub. Corp.
- Brinker, K.(1992)/이성만 역(1994), *텍스트 언어학의 이해 (Linguistische Textanalyse)*, 한국문화사.
- Brinton, A.(1988), "Appeal to angry emotions," *Informal logic*, 10: 77-87.
- Curriculum Corporation(1994), *English-A curriculum profile for Australia schools*. Calton: A E Keating Pty Ltd.
- Dijk, T. A. van(ed.)(1997), *Discourse as structure and process-discourse studies: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v. 1, 2. London; Thousand; Oaks;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Eemeren, F. H. van and R. Grootendorst(eds.)(1987), *Speech acts in argumentative discussions. a theoretical model for the analysis of discussions directed towards solving conflicts of opinion*. Dordrecht; Cinnaminson: Foris Publications. PDA 1.
- Eemeren, F. H. van and R. Grootendorst(eds.)(1992), *Argumentation, communication, and fallacies: a pragma-dialectical perspectiv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emeren, F. H. van and R. Grootendorst(eds.)(1994), *Studies in pragma-dialectics*. Amsterdam: Sic Sat(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Argumentation).
- Eemeren, F. H. van et al.(1996), *Fundamentals of argumentation theory: a handbook of historical backgrounds and contemporary developments*. NJ: LEA.
- Eemeren, F. H. van(1994), "The study of agumentation as normative

- pragmatics," in: Eemeren, F. H. van and R. Grootendorst (eds.) (1994), pp.3-8.
- Eemeren, F. H. van, K. de Glopper, R. Grootendorst and R. J. Oostdam(1995), "Students performance in identifying unexpressed premises and argumentation schemes," *Argumentation and advocacy*, 31: 151-162.
- Eemeren, F. H. van, R. Grootendorst and B. Meufffels(1989), "The skill of identifying argumentation," *Argumentation and advocacy*, 25(4): 239-345.
- Eemeren, F. H. van, R. Grootendorst, S. Jackson and S. Jacobs(1997), "Argumentation," in: Dijk, T. A. van(1997), pp.208-229.
- Ennis, R. H.(1989), "Critical thinking and subject specificity," *Educational researcher*, 18: 4-10.
- Johnson, R. H.(1995), "Informal logic and pragma-dialectics: Some differences," in: Eemeren, et al.(eds.)(1995), pp.237-45.
- Johnson, R. H.(2000), *Manifest rationality: a pragmatic theory of argument*. NJ: LEA.
- Perelman, C.(1982), *The realm of rhetoric*. W. Kluback.(trans.) Nortre Dame: University of Nortre Dame Press.
- Perelman, Ch. and L. Olbrechts-Tyteca(1958/1969), *The new rhetoric. A teratise on argumentation(La nouvelle rhétorique: Traité de l'argumentation)*. Nortre Dame; Londo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Schmidt, S. J.(ed.)(1987)/박여성(역)(1995), 구성주의(*Der Diskurs des Radikalen Konstruktivismus*), 서울: 도서출판 까치.
- Thereadgold, T.(1994), "Genre," in: Asher, R. E.(ed.)(1994), pp.1408-11.
- Tindale, C. W.(1999), *Acts of arguing: a rhetorical model of*

- argument*.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 Walton, D. N.(1989), *Informal logic: a handbook for critical argumentation*. Cambridg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ton, D. N.(1991), *Begging the question: circular reasoning as a tactic of argumentation*. N.Y.: Greenwood.
- Walton, D. N.(1995), *A pragmatic theory of fallacy*. Tuscaloosa: University of Amsterdam Press.
- Woods, J. and D. N. Walton(1982), *Argument: the logic of the fallacies*. Toronto: McGraw-Hill Ryerson.
- Woods, J. and D. N. Walton(1989), *Fallacies: selected papers 1972-1982*. Dordrecht/Holland: Foris Publications.

<초록>

## 논증 이론의 현황과 국어 교육의 과제

민 병 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국어과 교육에서 논증 교육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논증 이론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어 교육에서 연구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였다.

논증이란 의견의 차이 또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언어적이고 사회적인 행위이다. 논증 활동은 첫째,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며, 둘째, 발달적 특성이 있고, 셋째, 특정 문화를 반영하며, 넷째, 하나의 장르로서 기능한다.

논증 이론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형성되어 왔다. 논리학적 관점, 실용-대화론적 관점, 수사학적 관점이 그것인데 이는 각각 논증활동을 산물, 절차, 과정으로서 접근하는 관점을 반영한다. 이 이론들은 논증활동의 실상을 기술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철학적, 이론적, 분석적, 경험적, 실제적인 측면에서 연구분야를 축적하고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어 교육이 언어 사용자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면, 언어가 인간의 세계 인식과 실천의 매개물인 한, 국어 교육의 내용은 형식적 관점을 지양하고 좀더 기능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국어 교육에서 논증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연구 과제를 논증 이론의 모형 구안, 논증 능력 발달의 연구, 논증 문화의 기술 따위의 기초 연구 과제와 교육 목표의 설정과 내용의 구성, 교수 학습 및 평가 따위의 실용적 연구 과제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핵심어】** 국어 교육학, 논증, 논증활동, 논증 이론, 논리학, 실용-대화론, 수사학.

<Abstract>

## **A critical overview of the argumentation theories and research topics for the science of Korean education**

**Min, Byeong-gon**

In this article, a critical overview of the argumentation theories was given and some research topics for the science of Korean education was proposed.

Argumentation is a verbal and social activity to resolve the difference of opinions and conflicts reasonably. It will be characterized as being done in concrete contexts, being developmental, reflecting specific cultures, and having generic functions.

There have been three main approaches to argumentation theories: logical, pragma-dialectical, and rhetorical. The first one focuses on argumentation as a product, the second one as a procedure, and the third one as a process. These three approaches have merits respectively which have to be served for describing the real argumentation. And the philosophical, theoretical, analytical, empirical, and practical researches are to be added to the argumentation theories.

If we agree that the target of language education is the person as a language-user, as far as language is a medium of person's cognition and practice between him/herself and the real world, we have to adhere to the perspective that the contents of language education are not formal ones but functional and critical ones. From this standpoint, I proposed some research topics for the science of Korean education. The basic ones are designing the model of argumentation theory, surveying the argumentative competence, and describing the argumentative culture. And the practical ones include establishing the objects, constructing the contents didactically, and developing teaching-learning methods and evaluation practices.

**[Key words]** science of Korean education, argument, argumentation, argumentation theory, logic, pragma-dialectic, rhetoric.